

한려수도(閑麗水道)의 봄

강 욱
자유기고가

한반도의 남단 중간지점인 여수반도의 남쪽 끄트머리에 자리 잡은 여수시는 천혜의 아름다운 항구다. 여수항은 소백산맥이 여릿한 산세를 끼쳐 일으킨 높이가 219 미터인 종고산을 뒤희에 두고, 맑고 푸른 남해의 바닷물을 굽어보고 있다. 이 맑고 푸른 바닷물이 바로 이 나라에서 가장 수려한 경관을 지닌 뱃길인 한려수도에 이어지며 오동도, 돌산도, 금오도, 남해도 같은 아름다운 섬을 품고 있어 경치가 빼어나다. 이런 여러 섬 중에서도 동백 숲과 시누대 숲이 온 섬을 뒤덮을 만큼 울울한 오동도의 아름다운 경치는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내륙지방과 이어지는 여수의 서북쪽에는 고락산, 장군산, 호암산, 마래산 같은 여러 산이 가로막아 이곳은 예로부터 교통 사정이 매우 불편했다. 따라서 여수시의 땅은 조선시대 말기까지도 뚝단배 몇 채가 오락가락 하는 조용하고도 한적한 어촌에 지나

지 않았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에 들어와서 여수는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 만주 땅을 침략하려던 제국주의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이곳에 새로운 항구를 개발했다.

그들은 1930년에 송정리에서부터 여수항까지 160 킬로미터의 철도를 놓아 불편한 교통조건을 극복하고 남향과 북향을 근대 항구로 개발하였다. 그리하여 여수시와 일본의 나가사키 사이에는 날마다 사람과 물자를 가득 실은 연락선이 오갔고 일본 사람이 적지 않게 이곳에 들어와 살았다. 또 여수시 일대의 바다에서 잡히는 갯가지 해산물이 모두 이 항구에 부려졌다가 전라선 열차에 실려 광주나 서울로 나갔고 그에 따라 여수항은 사람과 물자와 돈이 혼한 곳이 되었다.

여수 앞 바다는 한겨울에도 수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고, 물깊이도 이삼백 미터쯤으로 깊을 뿐더러 항만이 넓어서 항구도시

가 자라기에 알맞은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굴곡이 심한 해안선 때문에 바닷물이 들고나는 속도가 느리고 여러 섬이 바깥 바다의 거센 물결을 막아주는 터라 잔잔하다. 그리하여 여수 앞 바다는 거친 바다를 싫어하는 갈치, 멸치, 오징어, 고등어, 병어, 참조기, 보리새우들이 많이 살고 키조개, 피조개, 굴 같은 조개류와 미역을 양식하기에도 알맞다.

봄 내음이 물씬 풍기는 오동도는 768m의 방파제로 연결된 아름다운 섬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 섬은 동백 등 194종의 희귀 수목과 기암절벽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여수시를 상징하는 오동도 동백꽃은 늦겨울과 이른봄에 개화한다. 눈이 시리도록 붉은 동백꽃은 향기롭고 꽃이 많으며 꽃 수술이 노란색으로 아름다움을 더한다. 동백나무는 상록활엽수로 추위와 공해에도 강하여 인내와 끈기를 상징하는데 동백의 열매는 옛부터 등잔기름, 머릿기름의 원료로 사용되었다.

여수 제일의 자랑거리 오동도에는 ‘동백열차’와 남국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열대식물원 등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다. 해상관광을 위한 유람선도 준비되어 있고 횃집촌이 형성되어 이곳에서 맛보는 회 맛은 일품이다. 또한 자갈, 호박돌, 해미석 등 다양한 돌과 나무를 이용한 환경 친화적인 맨발산책로가 있어 눈길을 끈다. 갯 내음을 맡으며 한번 걸어볼 만 하다.

여수시 중앙동 구항 앞으로는 돌산대교가 눈앞에 펼쳐진다. 돌산도는 우리 나라에서 일곱 번째로 큰 섬이다. 길이 450m, 폭 11.7m의 사장교인 돌산대교의 준공으로 육

지와 연결되었다. 이 섬은 경치가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아 도심권 휴양 해양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돌산에는 충무공 전승비를 비롯하여 은적암·향일암 등의 절이 있고 방죽포 같은 해수욕장과 무술목 유원지 등이 있다.

돌산도는 섬이 길쭉하여 한바퀴를 돌 필요도 없이 17번 도로만 따라가면 일주를 하는 섬이 된다. 아름다운 몽돌밭과 소나무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무술목은 이순신 장군이 무술년의 해전에서 크게 승전한 곳으로 ‘무서운 목’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바다 풍경이 잔잔히 내려다보이는 은적암은 암자 뒤편의 석벽이 마치 병풍을 두른 것 같고 주변이 너무나 조용하다.

향일암은 해를 향한 암자란 뜻이다. 이 암자는 신라 선덕여왕 13년(644)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여 원통암이라 부르다가 고려 광종 9년(958)에 윤필대사가 향일암이라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4대 관음기도처 중의 하나로 이곳에서 바라보는 남해바다의 수평선 일출은 천하 절경으로 사계절 내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거문도는 여수시와 제주도의 중간쯤에 자리잡고 있다. 여수항에서 뱃길로 약 1시간 40분 정도(114.7km 거리)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인 거문도에 도달할 수 있다. 한 개의 섬이 아니라 섬 셋, 곧 고도와 동도와 서도로 이루어진 거문도는 이 세 섬이 어우러지면서 이룬 내해가 호수처럼 잔잔하고 깊어 큰 배가 드나들기에 편리하다. 또 가까운 바다에는 청어, 고등어, 삼치, 갈치 같은 갯가지 바닷고기가 많은 터라 항구로

서 또 어업의 전진기지로서 좋은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거문도에서 동쪽으로 칠십리쯤 떨어진 곳에 백도가 있다. 태고의 신비로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빼어난 경관으로 1979년에 국가 명승지 제7호로 지정되었다. 거문항에서 1시간 정도를 가면 백도와 만나는데 백도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오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유람선을 이용해 약 1시간 가량 기암괴석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끝없이 푸르기만 한 바다 가운데에 불쑥 솟은 바위섬 39개가 모인 무인군도 백도는 문명에 젖은 도시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이 신비로운 원시 자연의 모습을 보여준다. 백도는 철을 가리지 않고 휘감는 파도와 바람에 씻기우면서 저마다 독특한 형태를 지니게 된 바위섬이다. 메마르고 단단한 바위땅에 뿌리를 내리고 철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갖가지 풀과 나무, 캄캄한 밤에 뱃길을 잃었던 거문도 어부에게 그 향기로써 길을 알려준 풍란과 석란 등이 자라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해금강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 나라 역사에서 섯별처럼 빛나는 공적을 남긴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해 전인 1591년 2월 13일에 마흔아홉살의 나이로 이곳의 전라 좌수사에 임명되었다. 그는 세상 사람이 두루 아는 바대로 충성심이 강하고 전략에 뛰어나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여수시에는 그의 체취가 스며있는 전설이나 유적이 많다.

여수시 덕충동 마래산 기슭에는 충무공을 기리는 사당으로서 맨 처음 세워진 충

민사가 있다. 이 사당은 선조의 왕명으로 1601년 삼도수군통제사인 이시언이 세웠고, 그 후 선조의 사액을 받았다. 충민사는 1663년에 세워진 통영의 충렬사나 1704년에 세워진 아산의 현충사보다 훨씬 앞서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당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아산 현충사와 함께 헐렸다가 5년 뒤인 고종 10년 지역 유림들의 진정으로 다시 세워졌다.

군자동에 있는 진남관은 이순신이 죽자 그 뒤를 이어 전라 좌수사로 온 이시언이 1598년 12월에 전라 좌수영의 본영으로 세운 목조건물인데 그 뒤로 여러번 고쳐 지어졌다. 앞에서 볼 때에 열다섯간이고 옆에서 볼 때에 다섯간인 한옥으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단일 전통 목조 건물로서는 규모가 가장 크다. 진남관은 생김새와 전망이 빼어난 아름다운 건물로 보물 324호로 지정되어 있다.

여수지역의 특산물로는 돌산갯김치, 고들빼기, 유자, 단감, 방울토마토 등의 농산물과 갈치, 삼치, 멸치, 쥐지포, 굴, 홍합, 젓갈류 등의 수산물이 있다. 특히 돌산갯은 한반도 남단의 따듯한 해양성 기후와 비옥한 알카리성 토질의 돌산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특산품이다. 독특한 향이 있는 돌산갯은 톡 쏘는 매운맛과 섬유질이 적고 잎과 줄기에 잔털이 없으며 연하고 부드러운 연녹색이다. 돌산갯은 비타민A,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한 무공해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